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9월 10일)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9월 28일 임기를 시작했다. 중앙종무기관과 조계사 사부대중의 환영 속에 입장한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집무실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진우 스님, 불교 중흥 '첫 걸음' 내딛다

9월28일 제37대 총무원장 취임
총무 호산 · 기획 성화 스님 등
부실장 · 국장단 15명에 임명장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을" 당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신임 부실장 · 국장단 임명장 수여를 마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제37대 집행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기 개시일인 9월 28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단 임명을 시작으로 37대 집행부 업무를 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오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집행부 교역직 소임자 인선을 단행했다. 총무부장에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재무부장 우하 스님, 문화부장 탄원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 호법부장 서리에 현민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에 미등 스님이 임명됐다. 사서실장은 정기종회 이후 임명될 예정이다.

국장단 인사도 이날 단행됐다. 총무국장에 향림 스님, 기획국장에 일엄 스님, 홍보국장 지안 스님, 감사국장 정오 스님, 재무국장 혜등 스님, 문화국장에 용주 스님, 사회국장에 현우 스님이 임명됐다. 호법부 호법국장에 선화 스님, 조사국장에 지묵 스님, 상임감찰에 금오 · 덕운 · 선안 · 진효 · 혜능 스님, 호법과장에 보타 스님, 조사과장에 우승 스님이 임명됐다.

이와 함께 사업국장에는 법수 스님이, 사서국장에는 일규 스님, 직할교구사무처 사무국장 진광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에 성민 스님,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에 선효 스님이 임명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는 덕운 스님, 문화사업국장에는 대우 스님,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서리에 지현 스님이 임명됐으며 사서실 사서에 도명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6대 집행부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책임감으로 함께해 달라"며 "각기 주어진 소임에 충실히 임해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37대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담긴 공약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포교에 중점을 두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공식출범하면서 향후 어떤 변화를 일궈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도들의 공의를 토대로 단일후보로 출마해 선거절차 없이 당선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종단 안정과 화합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진우 스님은 최우선 종책기조로 '소통'을 강조한 만큼 취임 첫날부터 적극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당선인 신분에서부터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권역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종교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신당역 스토킹피해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남다른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청년들과의 점심간담회를 열고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격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주요 종책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종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 덕분이다. 이어 정부 관계자와 신도회 임원단의 예방에서도 편안한 대화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에, '소통하는 총무원장'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일찌감치 각인시켰다는 여론이 많다. 새롭게 출범한 제37대 집행부의 행보가 불교계 안팎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조계종 행자 수계교육 30년 역사 망라하다

교육원 '행자 수계교육 30년사' 발간



진우 스님 원력이 담긴 사업
1991~2021년 행자 수계교육
기구 · 사진 · 기사 등 수록해
30년간 9795명 출가자 배출
행자교육 전반 흐름 '한눈에'

조계종으로 출가한 모든 행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교육기관이 있다. 바로 '행자교육원'이다. 행자교육원은 1991년 3월 행자교육원 설치령이 제정되고, 그해 8월 행자교육원이 개원됐다. 1991년 9월 16일 해인사에서 봉행된 수계산림을 1기로 한 행자교육원은 2021년까지 61기가 수료하며 명실상부한 조계종 승가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행자교육원은 지난 30년 동안 9795명의 행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출자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게 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의 역사와 교육변화 등을 망라한 백서가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서봉)은 9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1년 단일계단 설립 이후 1991년 행자교육원 출범으로 체계화된 행자 수계교육의 성과를 담아낸 〈행자 수계교육 30년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자 수계교육 30년사〉 발간사업은 "수행의 첫 걸음인 종단 행자교육의 역사와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백 · 율사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現 총무원장)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중앙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보관 서류를 열람 · 기록하며 발간 작업을 진행해왔다. 출간 예정일은 지난 7월이었으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열 · 수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9월에 발간하게 됐다.

〈행자 수계교육 30년사〉에는 행자교육원의 태동과 출범, 교육원 별원 독립을 거치며 확장된 행자교육의 개념과 그간의 역사를 정리한 '조계종 행자 수계교육 30년 약사'를 비롯해 그간 행자교육을 이끌어온 스님들의 회고집이 수록됐다. 회고집 인터뷰에는 성우(前 조계종 전계대화상) · 무관(조계종 전계대화상) · 동주(前 조계종 어산어장) · 지현(조계총림 율주) · 지운(계단위원) · 수진(조계종 고시위원장) · 경성(해인총림 율주) · 덕문(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 효명(쌍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 지형(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율주) · 일연(前 동학사승가대학장) · 상덕(중앙종회교육분과위원장) · 일진(前운문사승가대학장) · 적연 스님(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이 참여했다.

또한 역대 교육원장, 지도위원장 등 임원 스님과 수계현장 사진을 내용별로 분류 · 수록했으며, 각 기수별 교육기구표, 활동사진, 관련 기사들을 담았다.

부록으로는 행자 수계교육 통계자료를 비롯해 본사별 행자 통계, 교육일정표, 현행 종헌 · 종법령 등을 수록해 행자교육의 전반적 흐름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

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총무원장 진우 스님(당시 교육원장)은 발간사에서 "출가자 교육의 첫 시작은 기초교육인 행자교육과정이다. 이 대작불사는 수많은 스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30년동안 여법한 수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면서 "행자교육원 초기에는 교육여건이나 교육과목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원력과 정성을 모아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행자 수계교육 30년사〉가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 · 활용돼 행자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이 개발되고, 현 시대 승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행자 수계교육 30년사〉는 행자교육원을 거친 스님들에게는 자신의 기록이자 출가 초심을 다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당 백서는 전국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승가교육 연구자들에게는 시대에 맞는 승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